

한 총리,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..."이웃사랑 실천 보여줘"

(서울=뉴스1) 윤수희 기자 | 2023-02-03 15:00 송고



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. 2023.2.2/뉴스1 © News1 김명섭 기자

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 의전 행사실에서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을 만나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.

한 총리는 "대한적십자사가 강원도 동해안 산불지원, 태풍 힌남노 피해지원 등 국내외에서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을 보여주고 있다"면서 "대한민국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보다 성숙한 사회로 발전해가기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"고 감사를 표했다.

또 "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6개 적십자병원(서울·상주·영주·인천·통영·거창)이 감염환자 관리의 최일선에서 분투하고 2022년도 헌혈량이 전년도에 비해 3만 건 증가하는 성과를 달성했다"며 "올해도 지역 공공의료와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"고 당부했다.

한 총리는 "올해 적십자 회비 모금목표가 차질없이 달성되기를 기대하며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함께 마련해달라"고 말했다.